

연변 조선족 어머니의 문화접변 및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적응간의 관계*

The Relations of Acculturation and Parenting Behaviors of Korean-Chinese
Mothers in Yanbian Area to Adjustment of their Children*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교수 박성연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김미경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조교수 도현심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 Ewha Womans Univ.

Professor : Park, Seong-Yeon

Dept. of Foods and Nutrition, Ewha Womans Univ.

Professor : Kim, Mi Kyung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 Ewha Womans Univ.

Assistant Professor : Doh, Hyun-Sim

◀ 목 차 ▶

- | | |
|------------|----------|
| I. 문제제기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 of acculturation and parenting behaviors of 279 Korean-Chinese mothers living in Yanbian Area in China to Adjustment of their eighth- and ninth-grade children. The mothers completed a questionnaire consisted of items regarding daily eating habits(food life) and language use, the acculturation scale, and the parenting scale, and their children completed the depression, self-

* 본 연구는 1999년 한국언론재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esteem, and social competence scale. While most of mothers preferred Korean food to Chinese food, they preferred Chinese to Korean in daily language use. The mothers' ethnic identity was negatively related to depression of their children, whereas their out-group orientation was positively related to social competence of their children. In general, the relation between mothers' acculturation and adjustment of their children was not mediated by their parenting behaviors. But maternal warmth and acceptance partly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their out-group orientation and social competence of their children. These results imply that their acculturation tends to have direct effects on adjustment of their children.

I. 문제제기

부모의 양육행동은 그들이 속한 사회의 역사나 문화적인 가치관을 반영하기 때문에, 문화가 아동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은 다른 나라로 이주한 이민가족을 연구하기도 한다. 이민가족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은 이민가족이 자기 민족의 고유한 문화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주류국의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또는 두 가지 문화의 특성을 모두 나타낼 것인가?에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이민자의 적응(adhesive adaptation)과 직결된다.

이민자의 적응이란 삶을 향상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자신의 태도나 행동 양식을 조형해 가는 '과정'으로서, 사회, 문화, 경제 및 심리적 차원을 포함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회로 이주하게 된 이민 가족들은 특히 모국의 전통적 양육가치관이나 생활방식과 새로운 환경에서 요구되는 가치관이나 행동사이에서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즉, 이민 가족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필요한 언어나 풍습을 익혀야 하고, 자녀의 입장에서는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한 개인적인 적응문제를 겪게 되는 한편, 특히 자아정체감 확립이라는 발달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기에는 부모의 가치관이나 양육방식으로 인해 부모-자녀간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혼란을 겪는 적응과정에서 어떤 부모들은 모국의 전통적 가치관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강압적이거나 권위주의적, 비밀관적인 양육행동을 취하는가 하면, 어떤 부모들은 기존의 가치관을 다 포기하고 새로운 환경 또는 주류국의 가치관을 받아들

여 동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기존의 가치 중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수정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에서 요구되는 행동특성이나 가치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 이와 같이 새로운 문화에서 살게된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에 잘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언어, 가치, 신념, 역할 그리고 사회적인 상호작용규범을 조정해 가는 과정을 문화적변(acculturation)이라 일컫는다(Mendoza & Martinez, 1981).

문화적변에 관한 연구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아동의 발달을 이해하려는 최근의 발달적 연구동향에 힘입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미국이나 캐나다에 이주한 이민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민 가족의 문화적변 정도(Leonard-Spark & Saran, 1980), 청소년의 사회화(Patel, Power, & Bhavnagri, 1996), 10대 청소년들이 겪는 갈등(Chui, Feldman, & Rosenthal, 1992),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관한 것(Nauack, 1988; Kobayashi-Winata, & Power, 1989)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부모의 문화적변 정도와 아버지의 양육행동간의 관계(Jain & Belsky, 1997)나 이민자들과 본토인들간의 양육행동 비교(Kelly & Tseng, 1992)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문화적변 정도는 인종, 부모의 성 및 거주기간에 따라 다르며, 사회·구조적 특성 및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도 다르다. 한편, 문화적변 정도에 따라 양육가치관이나 양육행동도 달라지며 부모-자녀간 갈등정도나 아동 발달 및 적응도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적변을 나타내는 지표나 문화적변과 적응간에 관계에 관한 이론적인 틀이 연구자마다 다르

게 적용되어 연구결과 간에 불일치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문화접변에 관한 연구들 대부분이 미국이나 캐나다에 거주하는 이민가족인 인도인, 중국인, 남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타 문화권이나 다른 소수 민족의 문화접변이나 아동의 적응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한편, 이민 가족이나 아동의 적응문제는 이민 가족의 고유한 가치관이나 행동이 주류국의 것과 차이가 클 때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것이 시사되고 있어(Nguyen, Messe, & Stollark, 1999), 서양 문화권에 이주한 경우와는 달리 동양권에 이주한 한국인의 경우는 문화접변 과정에서 다른 경험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같은 동양권 문화에 이주한 한국 가족의 연구는 문화접변과 적응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소수 민족이 많이 이주해 살고 있는 중국 내에서도 연변지역에 이주해 사는 조선족들은 미국 등 다른 국가로의 이민보다 그 역사가 오래 되었고, 미국이주 한국인과는 달리 중국 국적을 가지고 중국인으로서의 정체감이 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노치영, 2000) 이들의 민족 정체감이나 문화접변 문제는 독자적인 특성을 나타낼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연변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문화접변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문화접변이 조선족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나 청소년 자녀들의 적응과 어떠한 방식으로 관련되는가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문적·실용적 필요성을 지닌다. 우선, 국내외 연구에서 동양권에 이민한 가족 및 조선족에 대한 문화접변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더욱이 이민 가족의 경우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 확립 문제로 인해, 부모나 자녀의 갈등이 더욱 심각해진다(Scott & Scott, 1989; Chui, Feldman, & Rosenthal, 1992)사실에 입각해 볼 때, 연변 조선족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연구는 학문적인 의의를 지닌다.

한편, 연변 조선족을 이해하는 일은 한 민족의 통일을 앞둔 시점에서 실용적인 필요성을 지닌다. 즉, 남북한간의 교류가 보다 가시화되고 있는 최근에 이르러, 많은 북한 문제 연구가들이 남북한간의 문

화적 이질성 문제를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 요소로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북한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동포들의 생활상을 직접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통일을 위한 진정한 대비책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리적, 역사적으로 북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연변지역의 조선족들에 대한 연구는 통일 후 예상되는 남북한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남북간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문화접변의 개념 및 과정

새로운 국가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은 몸뿐 만 아니라 자기민족에서의 가치관, 태도 사회화신념, 행동규범 등 문화적, 정신적인 유산을 가지고 오게 된다. 그러나 일단 정착하게 되면, 주류사회와의 빈번한 접촉을 통해 이러한 가치관, 신념, 행동규범을 점차 변화시켜 가는 문화접변 과정을 거친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접변과 문화동화가 혼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두 용어는 서로 구별되는 과정이다. 즉, 문화접변이란 새로운 문화의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이주국의 행동양식을 채택(adopt)하는 것(Lonner & Berry, 1989)인 한편, 동화란 몇 단계를 거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본국의 가치관이나 소속 감등을 버리고 새로운 이주국의 가치관이나 행동 특성으로 대치되는 것이다(Gordon, 1964; Laroche, Kim, Hui, & Joy, 1996). 학자에 따라서는 동화를 강조하면서, 동화정도에 따라 문화접변 과정을 양극의 단일차원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이차원적인 입장에서 두 문화(민족문화와 새로운 문화) 각 각을 어느 정도로 수용하는가 하는 상호작용적인 측면을 강조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유럽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했던 초창기에는 새로운 문화적 가치에 의해 잠식되는

문화적 동화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미국인과 여러 면에서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아시아계의 이민이 급증하면서 이민 과정에서 모든 것을 흡수하는 동화과정이 아닌 선택적 과정이라는 점과 새로운 문화에의 동화 또는 변용정도가 생활측면에 따라 다르다는 다면적인 본질이 강조되고 있다(Jain & Belsky, 1997; Patel, Power & Bhavnagri, 1996). 즉, 이민가족은 적응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측면은 아주 빠르게 받아들이고, 어떤 측면은 쉽게 수용하지 않는다(Mendoza & Martinez, 1981). 예를 들어, 부모는 사회화 가치관 중 교육이나 직업에 대해서는 비교적 변하기 쉬우나 남녀교제나 결혼과 같은 가치관에 대해서는 변화하기 힘들며(Sinha, 1988), 가치관이나 아동양육 또는 자녀의 사회화 양식보다는 언어생활이나 의생활 양식은 비교적 쉽게 받아들여기도 한다(Jain & Belsky, 1997).

따라서 새로운 모델에서는 이민적응이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이전의 가치를 새로운 가치로 대체하는 동화과정이 아니라, 주류국에서 경험한 스트레스에 따라 끊임없이 양쪽 문화의 요구를 선택하고 수정하는 통합적 과정이라고 본다(Buriel, 1993; Patel et al, 1996).

2. 문화접변과 양육행동간의 관계

연구자들은 문화접변을 파악하기 위해 음식선호나 언어사용 등 생활방식(life style)이나, 사회화 신념 및 행동, 전통적-서구적 가치관, 민족적 정체성 여부, 주류국 구성원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왔다(Ownbey & Horridge, 1998).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자에 따라서는 문화접변이 전통적인 성향에서 현대적인 성향으로 진행되는 입장에서 현대적인 가치관이나 성향을 이민 민족이 경험하는 문화접변과정의 중심요소로 보기도 하지만(Jain & Belsky, 1997), 현대적 가치관(혹은 서구화)과 문화접변을 분리된 차원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Patel et al., 1996). 전통적-현대적 가치관을 문화접변의 지표로 삼아 문화접변과 아버지의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Jain과 Belsky(1997)는 문화

접변과 아버지의 서구적인 양육행동간에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문화적으로 변용된 또는 현대화된 인도 이민가족의 아버지는 전형적인 인도 아버지와는 달리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가장 문화접변이 덜된 아버지의 경우는 아동양육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이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국에 이주해 사는 인도인 중에서도 주류국 문화와의 접촉 빈도나 개인의 동기 여하에 따라 문화접변 정도가 다른 한편, 거주기간은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를 예측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 거주기간은 문화접변과 관련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문화접변과 현대화를 단일 개념으로 본 Jain과 Belsky와는 달리, 전통적-현대적 가치관(traditionalism-modernity)과 민족 정체성 및 주류 사회와의 관계 지향에 근거한 문화접변을 각각 두 개의 독립된 차원으로 본 Patel 등(1996)은 휴스턴 지역 청소년 자녀를 둔 인도가족을 대상으로 문화접변, 현대화 그리고 사회화 가치관 및 자녀 양육태도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문화접변은 현대화(modernity)정도나 거주기간과 유의한 관련을 나타냈지만, 아버지의 사회화 신념(예: 예의범절이나 겸손함에 대한 신념)은 문화접변 정도와는 관련이 없었고 현대화와 관련이 있었다. 한편, 아버지의 문화접변 정도가 클수록 아들에 대한 전통적인 양육행동(꾸짖거나 무시, 반복적 지시)은 낮게 나타났으나, 딸에 대해서는 더 전통적인 행동을 나타내, 자녀의 성에 따라 부모의 문화접변과 사회화 행동간의 관계는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문화접변 정도와는 관련이 없고 거주기간과만 관련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전통적인 가치를 지켜가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Patel et al, 1996).

문화접변을 어떻게 측정했는가에 따라 관련변인과의 관계가 다르다는 사실은 한국 이민자를 대상으로 영어사용과 미국 대중매체에 대한 노출 정도, 미국식 이름에 대한 태도로 문화접변을 측정하고, 이와는 별개의 차원으로 민족적 애착정도를 측정한 Hurh와 Kim(1984)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즉, Hurh

와 Kim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거주기간이 길수록 이민자들의 문화접변(acculturation)이 더 잘 이루어지나, 민족적 애착은 거주기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음식에 대한 선호도나 음식문화 및 언어사용 등 생활양식을 문화접변 척도의 한 요인이나 지표로 보는 경우도 있다(예: Jain & Belsky, 1997; Owenby & Horridge, 1998). 이동창(1975)은 미국에 이주한 한국인의 경우 이름이나 주거양식, 의생활 등에서 어느 정도는 미국 문화에 동화되었지만, 많은 부분에서 전통적 가치관 및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 예로 이민자들의 대부분이 미국식 아침과 점심, 그리고 한국식 저녁을 먹고, 밥과 김치를 싫어하는 한국인은 거의 없으며 부모의 권위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 Farver, Kim과 Lee(1995)의 연구에서도 미국에 온지 7~10년 된 이들 한국이민 가족은 상당수가(71%) 집에서 한국말을 사용하고, 영어보다는 한국말을 더 선호하며, 미국 문화에 동화되기보다는 재미 한국인들끼리 관계를 가지며 미국문화와는 상당부분 차단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성취지향적인, 또는 집합주의적인 한국의 전통적인 양육 가치관 및 양육행동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여 문화적인 변용을 쉽게 찾아 볼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문화접변 지표들간의 관계는 비일관적으로 나타나며, 특히 물질적인 측면에 비해 사회화 신념이나 태도 등 비물질적 측면은 동화되기가 어려워 문화접변의 다면적인 특성을 확인시켜 준다. 따라서, 문화접변을 어떤 측면에서 연구하였는지에 따라 양육행동 및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도 서로 다르다. 이러한 사실들은 문화접변 연구에서 일반적인 생활방식 및 가치관, 민족적 정체성 및 주류국 사람들에 대한 태도 각각을 독립된 차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 부모의 문화접변과 청소년의 적응

청소년들의 생활은 연령 증가에 따라 점차 가정

밖으로 확대되어 가지만 이들의 발달이나 적응은 여전히 자신들이 속한 가족 내 외의 상호작용 체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부모 자신의 민족정체성이나 주류사회와의 관계유지를 비롯한 문화접변 태도는 모델로서 또는 가치 전달과정을 통해 자녀에게 전해지고 이러한 가치관이나 태도는 청소년의 행동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 에 이주한 청소년들의 문화접변을 연구한 Sam(1995)과 캐나다에 이주한 인도인 가정을 대상으로 한 Ayeon과 Kanungo(1998)은 부모의 문화접변 태도와 청소년의 문화접변 태도간에 유의한 상관을 보고함으로써, 아동의 문화접변 태도는 이주국에 대한 부모의 태도나 인식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모는 대개 모국에서 사회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사회적 관습과 종교적 전통을 지킴으로써 그들의 문화를 유지하려 하는 한편, 청소년 자녀는 또래로부터 수용되기 위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방식에 적응하므로 문화접변에서 부모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부모의 문화접변 태도는 청소년기 자녀가 경험하는 갈등의 근원이 될 수 있다.

Tajfel과 Turner(1986)의 사회적 정체성 이론에 의하면, 대개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른 집단보다는 자신의 집단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in-group bias를 나타낸다(Hinkle & Browne, 1990; Messick & Mackie, 1989). 한편, 부정적인 편견을 받고 있는 낮은 지위의 집단, 또는 소수 집단(minority)은 더 높은 지위의 외부집단을 더 선호하는 out-group bias를 보인다(Tajfel, 1978).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성향이나 발달적인 특성에 따라 이민가족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민족 집단이나 주류 집단과의 관계에서 서로 다른 태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들은 정체감 탐색 과정동안 자신과 다른 집단에 대해 양가적이며 불안정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Atkinson, Morten, & Sue, 1993; Cross, 1991; Phinney, 1993; Phinney & Chavira, 1992), 정체감 확립 과정에서 부모는 양육행동이나 문화접변 태도를 통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욱이, 청소년들이 더 안정적인 민족적 정

체감을 가질 수록 다른 집단을 더 잘 수용하는 것으로 보아(Cross, 1991; Helms, 1990; Phinney, 1989; 1993), 높은 민족적 정체감이나 다른 집단과의 관계는 아동의 적응과 긍정적으로 관련될 것으로 가정된다. 한편, 부모와 자녀 모두 주류 사회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면서 민족 문화를 지키려고 할 때는 청소년의 행동 문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Ayeon & Kanungo, 1998), 부모가 지나치게 민족문화를 강조하면서 주류사회와의 관계유지를 등한시한다면 청소년은 적응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해 보면, 민족적 정체감 형성과정이나 청소년의 적응 및 발달은 부모의 사회화 신념이나 양육행동과 관련되며, 동시에 부모의 문화적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태도를 선택적, 다면적인 특성으로 규정하고, 선행연구에서 중요한 문화적 태도 지표로 사용된 식생활 문화 및 언어사용, 그리고 민족정체성과 주류사회 구성원과의 관계지향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연변 조선족 어머니들의 문화적 태도(식생활 문화 및 언어사용)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문화적 태도(민족 정체성 및 주류사회와의 관계유지) 및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적응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1. 어머니의 문화적 태도와 양육행동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2. 어머니의 문화적 태도 및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적응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1) 연변 조선족의 일반적 특성

연변은 중국의 동북 삼성 중 길림성 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두만강과 압록강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어

지역적으로 북한과 경계에 있다. 공산주의 사회체제에 살고 있는 연변의 조선족은 한민족이지만 사고방식 등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명나라 때부터 시작한 농업이민에서 일제시대의 망명이민, 그리고 반강제 이민 등으로, 연변 총인구 220만명 중 조선족은 39.7%인 85만 4천명에 이르고 있다. 연변 조선족들의 가족당 월 평균 소득은 1,142 yuan(우리나라 원화 약 130만원)으로 문화수준과 교육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한편 조선어 사용이 가능하나 한국과의 언어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한국인과는 의사 소통이 다소 어렵다. 이들은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전형적인 韓民族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민족적 자부심이 높다. 그러나 이민 후 세대 변화에 따라 젊은 층에서는 점차 역사 의식, 민족 의식이 희박해지고 있으며 교육 수준이 점차 저하되고 있어(노치영, 2000) 부모-자녀간에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중국의 연변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2~3학년 남·여 청소년(남아 113명; 여아 162명)과 그들의 어머니 27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것은 자녀양육의 주 책임자로서의 어머니의 문화적 태도가 아버지보다 청소년의 적응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표 1〉에서 보듯이 연구대상의 아동은 13세부터 19세까지의 분포를 이루며, 평균연령은 17.5세이다. 연구대상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42.2세로, 교육수준은 약 74%가 고등학교 졸업이상이었다. 한편,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43.9세이며, 약 79%가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교육수준을 나타내었다. 가정의 월 평균 수입은 500~2000원 사이에 전체의 과반수 이상인 56.7%가 집중되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여, 본 연구 대상 가정은 중류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머니들(96.8%)과 아버지들(93.9%)은 중국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문화적변 및 양육행동에 관련된 어머니용 질문지와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학생용 질문지가 사용되었다. 각각의 척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어머니의 문화적변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어머니의 문화적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식

생활 문화, 언어사용, 민족 정체성 및 주류국 구성원과의 관계에 관한 척도가 사용되었다. 식생활 문화에 관한 문항은 우리 나라의 전통적 가치관 및 식생활을 포함한 전반적인 생활 방식에서의 서구화 정도를 묻는 Park과 Belsky(1998)의 서구화 척도와 Jain과 Belsky(1997)의 문화적변 척도를 기초로 하여 개발하였으며, 식습관과 식품구입에 관한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언어사용에 관한 문항은 총 5문항으로서, Cervantes, Padilla와 Salgado de Snyder(1991)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279; 단위: 명)

변 인	집 단 구 분	빈도(%)	변 인	집 단 구 분	빈도(%)
아동의 성	남	113(40.5)	아동의 형제순위	첫째	200(71.7)
	여	162(58.1)		둘째	67(24.0)
	무응답	4(1.4)		셋째	5(1.8)
			넷째 이상	2(0.7)	
			무응답	5(1.8)	
아동의 연령	만 17세 이상	31(11.1)	월평균 소득	500원 미만	67(24.0)
	만 16세	168(60.2)		500~1000원	80(28.7)
	만 15세	71(25.4)		1000~2000원	78(28.0)
	만 14세 이하	8(2.9)		2000~3000원	15(5.4)
	무응답	1(0.4)		3000원 이상	23(8.2)
	무응답	16(5.7)			
어머니의 연령	만 31~40세	5(1.8)	아버지의 연령	만 31~40세	8(2.9)
	만 41~50세	180(64.7)		만 41~50세	225(81.5)
	만 51~60세	93(33.1)		만 51~60세	43(14.5)
	무응답	1(0.4)		무응답	3(1.1)
어머니의 학력	초중학교 졸업 이하	70(25.1)	아버지의 학력	초중학교 졸업 이하	56(20.0)
	고중학교 졸업	168(60.2)		고중학교 졸업	150(53.8)
	대학교 졸업 이상	39(14.0)		대학교 졸업이상	70(25.1)
	무응답	2(0.7)		무응답	3(1.1)
어머니의 직업	무직, 가정주부	62(22.2)	아버지의 직업	무직	33(11.8)
	장사, 매매, 립시공	1(0.4)		장사, 매매, 립시공	3(1.1)
	노동자, 농민	101(36.2)		운전수, 농민	112(40.1)
	개체호(자영업)	35(12.5)		개체호(자영업)	24(8.6)
	경찰, 사무원	5(1.8)		경찰, 사무원	12(4.3)
	간호사, 공무원, 교사	58(20.8)		간호사, 공무원, 교사	63(22.6)
	의사, 기자, 회계	13(4.7)		의사, 기자, 회계	19(6.8)
	고위관리, 사업	3(1.1)		고위관리, 사업	11(3.9)
	무응답	1(0.4)		무응답	2(0.7)
어머니의 출생지	북조선(북한)	4(1.4)	아버지의 출생지	북조선(북한)	9(3.2)
	중국	270(96.8)		중국	262(93.9)
	기타	5(1.8)		기타	4(1.4)
	무응답	4(1.4)			

를 기초로 개발되었으며, 일상생활에서의 사용하는 언어를 비롯하여 평소 즐기는 대중매체의 언어에 관련한 내용들이다.

한편, 민족 정체성 및 주류국 구성원과의 관계에 관한 척도로는 MEIM(Multigroup Ethnic Identity Measure: Phinney, 1992)을 사용하였다. MEIM은 정체성, 소속감, 민족고유 행동 및 타 집단지향의 4개의 하위 척도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를 위해서는 문화적으로 적절치 않은 1개 문항을 제외한 19개 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최종적인 자료분석에서는 19개 문항 중 신뢰도를 낮추는 3문항을 제외하고 총 16개의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문항 별 반응양식은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Likert식 4점 척도로 평가된다.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해서는 Phinney(1992)의 제안에 따라 '타 집단지향' 하위 척도(본 논문에서는 '주류사회와의 관계 유지'로 명명함)(4문항)와 이를 제외하고 세 가지 하위 척도들을 합산한 '민족정체성' 하위 척도(12문항)의 두 가지 하위 척도로 구분하였다. '민족정체성' 하위 척도에는 '나는 조선족의 역사, 전통, 관습 등에 대해 좀더 많이 알고 애쓴다,' '나는 조선족으로 구성된 조직이나 사회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나는 조선족이라는 나의 민족 배경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 등의 문항들이, '주류사회와의 관계 유지' 하위 척도에는 '나는 漢族과 알고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 '때때로 나는 서로 다른 민족간에 교제나 왕래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종종 漢族과 시간을 보낸다' 등의 문항들이 포함된다. '민족정체성' 하위 척도와 '주류사회와의 관계 유지' 하위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각각 .84와 .72이었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박성연, 1989; Doh & Falbo, 1998)를 기초로 온정, 통제, 과보호의 양육행동 내용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된 총 24문항의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과보호 영역에서 신뢰도를

낮추는 1개 문항을 제외하고 온정 요인 9문항, 통제 요인 9문항, 과보호 요인 5문항 등 총 23문항이 최종적인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문항별 반응 양식은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특성을 많이 나타내는 것이 된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온정, 통제 그리고 과보호 요인의 Cronbach's α 계수는 각각 .80, .65 그리고 .70이었다.

3) 청소년의 적응 척도

청소년의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울감과 자아존중감 척도 그리고 사회적 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우울감 척도는 20문항으로 구성된 Radloff (1977)의 CES-D(The Center for Epidemic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연구자가 번안한 후 사용하였으며, 자료분석에서는 척도의 신뢰도를 낮추는 3문항을 삭제하고 17문항만을 사용하였다. 한편, 자아존중감 측정을 위해 Rosenberg(1965)의 Self-Esteem Scale을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10문항 중 신뢰도를 낮추는 1문항을 제외한 9문항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Allen, Weissberg와 Hawkins(189)의 사회적 능력 평가 척도 중 교사평정용을 사용하였으며, 총 16문항 중 신뢰도를 낮추는 2문항을 제외한 14문항을 사용하였다.

모든 척도의 응답범주는 '거의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의 Likert식 4점 척도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한편, 사회적 능력 척도 중 부정적인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는 몇 개 문항은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능력이 잘 발달되었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우울감,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능력의 Cronbach's α 계수는 각각 .77, .70 및 .77이었다.

3. 자료수집 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는 1999년 11월에 중국 연변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2, 3학년 남·여 아동과 그 어머니 300

쌍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어머니용과 청소년용 질문지는 각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후 담임선생님을 통해 청소년에게 배부하고, 2~3일 후 학교에서 회수하도록 하였다. 총 300부 중 21부를 제외한 279부가 회수되어(회수율: 93%) 총 27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PC 9.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식생활 문화, 언어사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연구문제에 따라서 Pearson의 적률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분석의 유의도는 $p < .05$ 이하 수준에서 검증되었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변 조선족 어머니들의 문화적변 실태

조선족 어머니들의 문화적변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식생활문화와 언어사용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에서와 같이, 식생활 문화의 경우, 조사 대상 전체의 절반 가량(48.4%)이 조선식으로 아침식사를 하였고, 그 다음 순서는 조선식 혹은 漢食(44.8%)으로 나타났으며, 漢食을 주로 하는 경우는 전체의 6.1%에 지나지 않았다. 외식의 경우에도, 조선식(42.7%)으로 응답한 경우가 漢食(28.3%)의 경우에 비해 더 많았다. 또한 과반수의 응답자(61.3%)가 조선식을 선호하는 음식으로 선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漢食과 한국식이 각각 15.5%와 10.0%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명절 음식의 경우는, 조선식으로 차리는 경우가 20.1%인 반면에, 조선식과 漢食을 함께 차리는 경우는 71.0%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응답자들(97.5%)은 명절 음식을 차리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들은 장류를 거의 매일(69.5%), 일주일에 3~4회(18.3%), 혹은 일주일에 1~2회(10.0%) 섭취하고 있었으며, 거의 먹지 않는 경우(2.2%)는 매우 드물게 나타났다. 간장, 된장, 고추장 등과 같

<표 2> 연변 조선족의 식생활 문화 실태

(N=279; 단위: 명)

변 인	집단구분	빈도(%)
아침식사	조선식	135(48.4)
	漢食	17(6.1)
	조선식 혹은 漢食	125(44.8)
	먹지 않는다	1(0.4)
	기타	1(0.4)
장류	거의 매일 먹는다	195(69.5)
	일주일에 3~4회 먹는다	51(18.3)
	일주일에 1~2회 먹는다	28(10.0)
	거의 먹지 않는다	6(2.2)
간장구입 장소	집에서 담근다	77(27.6)
	친척, 동무에게 얻는다	11(3.9)
	시장에서 구입한다	187(67.0)
	먹지 않는다	0(0.0)
된장구입 장소	집에서 담근다	171(61.3)
	친척, 동무에게 얻는다	56(20.1)
	시장에서 구입한다	47(16.8)
	먹지 않는다	2(0.7)
고추장구입 장소	집에서 담근다	167(59.9)
	친척, 동무에게 얻는다	38(13.6)
	시장에서 구입한다	68(24.4)
	먹지 않는다	3(1.1)
김치구입 장소	집에서 담근다	254(91.0)
	친척, 동무에게 얻는다	12(4.3)
	시장에서 구입한다	8(2.9)
	먹지 않는다	0(0.0)
명절음식 유무	예	272(97.5)
	아니오	7(2.5)
명절음식	조선식	56(20.1)
	漢食	14(5.0)
	조선식과 漢食	198(71.0)
	기타	3(1.1)
	무응답	8(2.9)
외식횟수	일주일에 3~4회	13(4.7)
	일주일에 1~2회	45(16.1)
	한달에 1~2회	120(43.0)
	거의 안한다	99(35.5)
	무응답	2(0.7)
외식음식	조선식	119(42.7)
	漢食	79(28.3)
	한국식	20(7.2)
	일본식	1(0.4)
	서양식	6(2.2)
	기타	7(2.5)
	두 가지이상	37(13.3)
무응답	10(3.6)	
선호음식	조선식	171(61.3)
	漢食	44(15.8)
	서양식	7(2.5)
	일본식	4(1.4)
	한국식	28(10.0)
	기타	3(1.1)
	두 가지이상	6(2.2)
무응답	16(5.7)	

은 장류의 구입장소를 살펴본 결과, 간장의 경우는 시장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과반수(67.0%)인 반면, 된장과 고추장의 경우는 과반수(각각 61.3%과 59.9%)가 집에서 담그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언어사용의 경우, 어머니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민족어인 조선어인지 혹은 주류문화 언어인 漢語인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그들이 평상시나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漢語라고 응답한 경우가 과반수를 넘었으며, 조선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10%에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읽는 신문과 즐겨 보는 영화나 TV 혹은 라디오 프로그램은 주로 漢語이거나 항상 漢語인 경우가 전체의 50% 내외이었으며, 20%정도는 조선어와 漢語를 반반씩이라고 응답하였고, 주로 조선어이거나 항상 조선어인 경우도 30%정도에 이르렀다. 즐겨 듣는 음악의 경우는, 평상시에 사용하는 언어의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82.8%)이 漢語로 된 음악을 듣고 있었으며,

조선어와 漢語를 반반씩 듣는 경우는 14.4%이었고, 조선어를 듣는 경우는 3%정도로 매우 드물었다(<표 3>).

2. 어머니의 문화접변, 양육행동 및 청소년의 적응간의 관계

연구문제 2의 분석을 위해서는 문화접변 척도 MEIM의 두 요인인 '민족 정체성'과 '주류사회와의 관계 유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어머니의 문화접변과 양육행동간의 관계

어머니의 문화접변과 양육행동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경우 유의한 관계를 보였으나 상관의 정도는 .13~.29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표 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족정체성이 높은 어머니들은 온정적, 통제적 양육행동 요인이, 주류사회

<표 3> 연변 조선족의 언어사용 실태

단위: 명(%)

문항내용	항상 조선어	주로 조선어	조선어와 漢語를 반반씩	주로 漢語	항상 漢語	계*
1. 당신은 평시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4(14)	20(7.2)	59(21.3)	128(46.2)	66(23.8)	277(100)
2. 당신은 집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7(2.5)	10(3.6)	39(14.0)	132(47.5)	90(32.4)	278(100)
3. 당신은 어떤 언어로 된 신문을 보십니까?	18(6.5)	65(23.6)	60(21.7)	84(30.4)	49(17.8)	276(100)
4. 당신은 어떤 언어로 된 영화, TV, 라디오 절목(프로그램)들을 좋아하십니까?	22(8.0)	58(21.0)	60(21.7)	94(34.1)	42(15.2)	276(100)
5. 당신은 어떤 음악을 즐기십니까?	3(1.1)	5(1.8)	40(14.4)	147(52.9)	83(29.9)	278(100)

* 무응답한 경우가 있어 각 문항별 총 응답자 수에 다소 차이가 있음.

<표 4> 어머니의 문화접변과 양육행동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M	SD
1. 민족정체성	-					2.83	.52
2. 주류사회와의 관계 유지	.19**	-				2.47	.68
3. 온정적 양육행동	.29**	.13*	-			2.93	.46
4. 통제적 양육행동	.17**	.19**	.01	-		2.26	.40
5. 과보호적 양육행동	.06	.17**	.23**	.46**	-	2.56	.56

* p<.05 ** p<.001

와의 관계 유지가 밀접한 어머니들은 온정적, 통제적, 과보호적 양육행동 요인 모두가 높게 나타났다.

2) 어머니의 문화접변 및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적응간의 관계

어머니의 문화접변과 청소년의 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민족정체성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우울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의 민족정체성이 높을수록 청소년은 우울감을 덜 경험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민족정체성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능력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주류사회와의 관계 유지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어머니가 주류사회 구성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때 청소년들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주류사회와의 관계 유지는 청소년

의 우울감 및 사회적 능력과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표 5>).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적응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능력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가 온정적일 때, 청소년들은 높은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의 온정성은 청소년의 우울감과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사회적 능력과만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어, 어머니가 통제적일 때 청소년은 낮은 사회적 능력을 보였다.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우울감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적응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표 6>).

<표 5> 어머니의 문화접변과 청소년의 적응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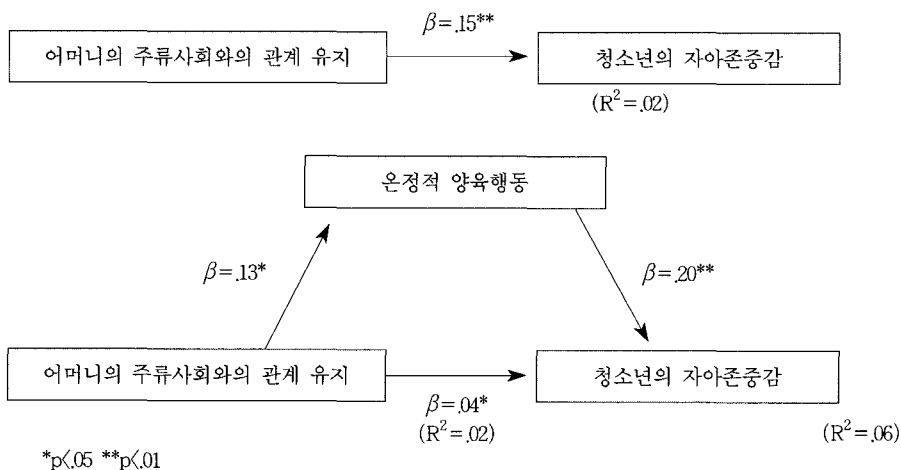
	우울감	자아존중감	사회적 능력
민족정체성	-.13*	.09	.10
주류사회와의 관계 유지	-.05	.15*	-.02

*p<.05

<표 6>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적응간의 관계

	우울감	자아존중감	사회적 능력
온정적 양육행동	-.05	.21**	.17**
통제적 양육행동	.09	-.09	-.13*
과보호적 양육행동	.03	.01	-.05

*p<.05 **p<.01



<그림 1> 어머니의 주류사회와의 관계 유지, 온정적 양육행동 및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한편, 위의 결과에서 보듯이 어머니의 문화접변은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고, 청소년의 적응은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문화접변 태도와 관련을 나타냈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문화접변과 청소년의 적응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매개효과의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모든 변인들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는 주류사회와의 관계 유지, 온정적 양육행동 및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등의 변인들이었다(〈표 4〉~〈표 6〉 참조).

이에, 주류사회와의 관계 유지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온정적 양육행동이 매개적 효과를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단계에 걸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주류사회와의 관계 유지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양자간의 관계는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내었다($\beta=.15, p<.01$). 다음으로 독립변인으로서 주류사회와의 관계 유지와 온정적 양육행동을 투입하고,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주류사회와의 관계 유지와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의 유의 수준은 저하되었다. 다시 말하면, 온정적 양육행동을 통제하였을 때 주류사회와의 관계 유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감소되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주류사회와의 관계 유지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부분적인 매개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도형으로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V. 논의

본 연구는 연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어머니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문화접변이 청소년의 적응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문화접변의 한 지표인 식생활 문화 및 언어사용의 실태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문체에 따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족 어머니들은 아침식사를 비롯한 외식과 명절 상차림에서 조선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전통적인 조선식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장류의 경우도 거의 매일 섭취하는 경우가 과반수를 넘었으며, 간장을 제외하고 된장과 고추장은 과반수가 집에서 담그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다른 어떤 지역에 비해서도 이른 시기에 조국을 떠나 살게 된 조선족들이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자신의 고유한 음식문화를 계승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재미교포의 경우 대부분 한국 음식을 여전히 좋아하는 것으로 보고한 이동창(197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처럼 식생활 문화에서 주류문화에 대한 동화가 더디게 나타난 점과 비교해 볼 때, 언어사용의 실태는 매우 대조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조선족 어머니들은 평상시에도 漢語를 사용하는 경우가 과반수를 넘었으며, 신문, 영화, TV, 라디오 및 음악 등과 같은 대중매체와 관련해서는 그 정도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미교포의 경우 집에서 한국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영어보다는 한국어를 선호한다는 연구결과(Farver et al., 1995)와 불일치한다. 이러한 불일치는 미국에 이민 온 재미교포 1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해, 앞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제시하였듯이 본 연구의 조선족 어머니들은 거의 모두 중국에서 출생한 점에 근거하여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역시 미국에서 태어난 재미교포 2세들은 한국어에 비해 영어를 훨씬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민 역사가 긴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은 조선어에 비해 漢語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식생활 문화 및 언어사용 실태에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주류국가에 대한 동화의 정도가 그 영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타 지역으로의 이주민들은 주류국가 문화에 모든 측면에서 완전히 동화되기보다는, 몇몇 측면에서 선택적으로 동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문화접변 및 양육행동간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족정체성과 주

류사회와의 관계 유지가 높은 어머니들의 경우는 온정적, 통제적, 혹은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와 유사한 내용의 척도를 사용한 연구를 발견하기가 어려워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문화적변과 양육행동간의 밀접한 관계를 보고한 연구결과(Jain & Belsky, 1997, Patel et al., 1996)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부모의 민족정체성이나 주류사회와의 관계 유지와 같은 문화적변 정도에 따라 자녀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문화적변과 청소년의 적응간의 관계에 있어, 어머니가 높은 민족정체성을 가지는 경우 청소년은 우울감을 덜 경험하였으며, 어머니가 주류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때 청소년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변과 적응간의 긍정적 관계를 보고한 연구결과들(Salgado de Snyder, 1987; Yu & Harburg, 1988)과 일치한다. 즉, 민족정체성은 개인의 건강한 발달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념으로서, 높은 민족정체성을 가진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고, 나아가 청소년 자녀의 정서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주류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어머니들은 보다 적응력 있는 사회생활을 하기가 쉬우며, 이는 곧 자녀의 자아존중감과도 관련될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적응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능력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사회적 능력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양육행동과 아동의 발달을 관련시킨, 수많은 선행 연구결과들(예: 김기정, 1984; 도현심, 최미경, 1998; Litovsky & Dusek, 1985; Richards, Gitelson, Petersen, & Hurtig, 1991)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긍정적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설득력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우울감은 어떠한 양육행동과도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특히 이

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우울감이 문화적변의 한 차원인 민족 정체성과는 부적인 관련을 나타낸 본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조선족 청소년들의 발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의 주류사회와의 관계 유지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온정적 양육행동은 부분적인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주류사회와의 관계 유지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간접적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머니가 주류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때 청소년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화적변은 어머니 스스로 자녀에게 온정적이며 수용적으로 다루는 데 영향을 미치고 결국 그들의 자녀는 보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양육행동 요인들의 매개적 효과가 발견되지 않아, 어머니의 문화적변과 청소년의 적응간의 관계에서 양육행동의 매개적 효과는 미약하며, 문화적변 태도가 청소년의 적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 조선족 어머니들은 식생활 문화를 계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적으로는 중국문화에 동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실태는 각각 어머니들의 민족정체성 및 주류사회와의 관계 유지 양 측면을 나타내며, 나아가 이러한 문화적변은 결국 청소년 자녀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과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로 보아, 부모가 민족정체성을 확립하면서 동시에 주류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인구의 과반수가 조선족으로 구성된 조선족 자치구인 연변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 어머니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중국의 여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연변 지역에 대한 연구가 거의 초창기에 있는 현 시점에서, 개인적 정보를 유출하는 데 다소 조심스러워 하는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하여 타당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

점에 그 의의가 크다. 더욱이, 통일한국을 대비하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점차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연변지역 조선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점에서도 미래의 연구들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참고문헌

- 1) 김기정(1984). 학업성취와 지각된 양육태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 노치영(2000). 통일 한국을 대비한 연변의 역할. 인간생활환경연구소 특별 세미나 발표자료. 이화여자대학교.
- 3) 도현심, 최미경(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경험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19(2), 19-33.
- 4) 박성연 (1998). 영아기 정서성 및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3세 아동의 행동억제. 대한가정학회지 36(4), 19-33.
- 5) Atkinson, D., Morten, G., & Sue, D. (1993). *Counseling American Minorities(4th ed.)*. Daybook, LA: Brown & Benchmark.
- 6) Aycan, Z. & Kanungo, R. N. (1998). Impact of Acculturation on Socialization Beliefs and Behavioral Occurrences among Indo-Canadian Immigrant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Calgary, Autumn 1998*.
- 7) Berry, W. (1980).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In A. M. Padilla (Ed.), *Acculturation: Theory, Models and Some New Findings*, Boulder, CO: Westview.
- 8) Berry, W. (1984). Cultural Relations in Plural Societies: Alternatives to Segregation and their Sociopsychological Implications. In N. Meller & M. Brewer (Eds.), *Groups in Contact: The Psychology of Desegregation* (pp. 11-29). Orlando, FL: Academic Press.
- 9) Berry, W. (1991). Refugee Adaptation in Settlement Countries: An Overview with and Emphasis on Primary Prevention. In F. Ahearn & J. Athey(Ed.), *Refugee Children: Theory, Research, and Services* (pp. 20-38).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10) Berry, W., Kalin, R., & Taylor, D. (1977). *Multiculturalism and Ethnic Attitudes in Canada*. Ottawa: Supply and Service-Canada.
- 11) Berry, W., Kim, U., Minde, T., & Mok, D. (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 491-511.
- 12) Buriel, R. (1993). Child-rearing Orientations in Mexican American Families: The Influence of Generation and Sociocultural Fact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987-1000.
- 13) Chui, L., Feldman, S., & Rosenthal, A. (1992). The Influence of Immigration on Parental Behavior and Adolescent Distress in Chinese Families Residing in Two Western Nation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 205-239.
- 14) Cervantes, R., Padilla, A. & Salgado de Snyder, N.(1991). The Hispanic Stress Inventory: A Culturally Relevant Approach to Psychosocial Assessment. *Psychological Assessment*, 3, 438-447.
- 15) Cross, W. (1991). *Shades of Black: Diversity in African-American Identity*.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16) Dickie-Clark, F. (1966). Marginal Situation: A Contribution to Theory. *Social Forces*, 44, 363-370.
- 17) Doh, H. & Falbo, T.(1999). Social Competence, Maternal Attentiveness, and Overprotectiveness: Only Children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3, 149-162.
- 18) Falbo, T., Doh, H., Lee, R., & Park, S.(2000). The Adaptation of Korean Immigrants to China and the U.S. *Proceedings of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2000 Annual in Los Angeles, CA.
- 19) Farver, M., Kim, Y. K., & Lee, Y. L. (1995). Cultural Differences in Korean-and Anglo-

- American Preschoolers' Social Interaction and Play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6, 1088-1099.
- 20) Gordon, M. (1964).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21) Helms, J. (1990). *Black and White Racial Identit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Greenwood.
- 22) Hinkle, S., & Brown, R. (1990). Intergroup Comparisons and Social Identity: Some Links and Lacunae. In D. Abrams & M. Hogg (Eds.), *Social Identity Theory: Constructive and Critical Advances* (pp. 48-70). New York: Springer Verlag.
- 23) Hurh, M. & Kim, K. C. (1984). *Korean Immigrants in America: A Structural Analysis of Ethnic Confinement and Adhesive Adaptation*. Cranbury, NJ: 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Press.
- 24) Jain, A. & Belsky, J. (1997). Fathering and Acculturation: Immigrant Indian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873-883.
- 25) Kelly, M., & Tseng, H. (1992). Cultural Differences in Child-rearing: A Comparison of Immigrant Chinese and Caucasian American Mother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3, 444-455.
- 26) Kobayashi-Winata, H., & Power, G. (1989). Child-rearing and Compliance: Japanese and American Families Houst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0, 333-356.
- 27) Lambert, W., Mermigis, L., & Taylo, D. (1986). Greek Canadians' Attitudes toward Own Group and Other Canadian Ethnic Groups: A Test of the Multiculturalism Hypothesis.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18, 35-51.
- 28) Laroche, M., Kim, C., Hui, M., & Joy, A. (1996). An Empirical Study of Multidimensional ethnic change: The Case of the French Canadians in Quebec.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7, 114-131.
- 29) Lee, D.(1975). *Acculturation of Korean Residents in Georgi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 of San Francisco.
- 30) Leonard-Spark, J., & Saran, P. (1980). The Indian Immigrant in America: A Demographic Profile. In E. Eames & P. Saran (Eds.), *The New Ethnics: Asian Indians in the United States* (pp. 136-162). New York: Praeger.
- 31) Lin, C. & Fu, R. (1990). A Comparison of Child-rearing Practices among Chinese, Immigrant Chinese, and Caucasian-American Parents. *Child Development*, 61, 429-433.
- 32) Litovsky, V. G., & Dusek, J. B.(1985). Perceptions of Child-rearing and Self-concept Development during the Early Adolescent Yea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 373-388.
- 33) Lonner, W., & Berry, J. (1989). *Field Methods in Cross-cultural Research*. Beverly Hills, CA: Sage.
- 34) Martin, P., & Widgren, J. (1996). International Migration: A Global Challenge. *Population Bulletin*, 51, 2-48.
- 35) Mauss, Marcel. (1954). *The Gift: Forms and Functions of Exchange in Archaic Societies*. Glencoe, Illinois: Free Press.
- 36) Mendoza, H., & Martinez, L. (1981). The Measurement of acculturation. In A. Baron, Jr. (Ed.), *Explorations in Chicago Psychology* (pp. 71-82). New York: Holt.
- 37) Messick, D., & Mackie, D. (1989). Intergroup Relations. In M. Rosenzweig & L. Porter (Ed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40,(pp. 45-81). Palo Alto, CA: Annual Reviews.
- 38) Nanyen, H. & Stollak, E. (1999). Toward a More Complex Understanding of Acculturation and Adjustment: Cultural Involvements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in Vietnamese Youth.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0, 5-31.

- 39) Nauck, B. (1988). Migration and Change in Parent-child Relationships. *International Migration*, 26, 24-48.
- 40) Nguyen, H., Messe, A., & Stollak, E. (1999). Toward a More Complex Understanding of Acculturation and Adjustment: Cultural Involvements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in Vietnamese Youth.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0, 5-31.
- 41) Ownbey, S. F. & Horridge, P. E. (1998). The Suinn-Lew Asian Self-identity Acculturation Scale: Test with a Non-student, Asian-American Sample.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6, 57-68.
- 42) Park, S.Y. & Belsky, J.(1998). *South Korean Mothers' Westernization and Orientation toward Child Inhibition*. Paper presented at the Symposium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Behavioral Development in Bern, Swiss.
- 43) Patel, N., Power, G., & Bhavnagri, P. (1996). Socialization Values and Practices of Indian Immigrant Parents: Correlates of Modernity and Acculturation. *Child Development*, 67, 302-313.
- 44) Phinney, S. (1989). Stages of Ethnic Identity Development in Minority Group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9, 34-49.
- 45) Phinney, S. (1990). Ethnic Identity in Adolescents and Adults: A Review of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08, 499-514.
- 46) Phinney, S. (1992). The Multigroup Ethnic Identity Measure: A New Scale for Use with Diverse Group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7, 156-176.
- 47) Phinney, S. (1993). A Three-stage Model of Ethnic Identity Development. In M. B. & G. Knight (Ed.), *Ethnic Identity: Formation and Transmission among Hispanics and Other Minorities*(pp. 61-79).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48) Phinney, S., Ferguson, S. & Tate, D. (1997). Intergroup Attitudes among Ethnic Minority Adolescents: A Causal Model. *Child Development*, 68, 955-969.
- 49) Phinney, S., & Chavira, V. (1992). Ethnic Identity and Self-esteem: An Exploratory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dolescence*, 15, 271-281.
- 50) Richards, M. H., Gitelson, I. B., Petersen, A. C., & Hurtig, A. L.(1991). Adolescent Personality in Girls and Boys: The Role of Mothers and Fathers. *Psychology of Woman Quarterly*, 15, 65-81.
- 51)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52) Salgado de Snyder, N. (1987). Factors Associated with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among Married Mexican Immigrant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1, 475-488.
- 53) Sam, L. (1995). Acculturation Attitudes Among Young Immigrants as a Function of Perceived Parental Attitudes toward Cultural Chang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5, 238-258.
- 54) Sanchez, J., & Fernandez, D. (1993). Acculturative Stress among Hispanics: A Bidimensional Model of Ethnic Identificat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3, 654-658.
- 55) Scott, A., & Scott, R. (1989). *Adaptations of Immigra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Determinants*. Oxford, England: Pergamon Press.
- 56) Sharda, D. (1990). Marriage Markets and Matrimonial: Matchmaking among Asian Indians of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of the Family*, 20, 21-29.
- 57) Sorenson, B., & Golding, M. (1988). Suicide Ideation and Attempts in Hispanics and non-Hispanic Whites: Demographic and Psychiatric Disorder Issues.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 Behavior*, 18, 205-218.
- 58) Tajfel, H. (1978). *The Social Psychology of Minorities*. New York: Minority Rights Group.
- 59) Tajfel, H., Turner, J.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 W.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pp. 7-24). Chicago: Nelson-Hall.
- 60) Yu, L., & Harburg, E. (1981). Filial Responsibility to Aged Parents Stress of Chinese Americans. *International Journal of Group Tensions*, 11, 47-58.